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동

무주군, 성공적 추진 위한 기본·시행 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무주군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무주군은 5일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사업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이날 보고회는 김희욱 부군수를 비롯한 행정협업체 위원 및 추진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주)공감피앤디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사업별·단계별 과업 세부 수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한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최종보고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산림의 치유관광 기반구축을 통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치유·관광 플랫폼 구축'을 실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에 지난 2021년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총 70억 원(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무주군 김희욱 부군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향후 4년 사업의 청사진으로써 기본계획이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단과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 '호응'

장수군, 경제적 부담 해소·주거 안정 향상 위해 전국 최초 지원

장수군이 주민들의 주거 안정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사업'은 장수군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귀농·귀촌인 및 주민들에게 지적측량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측량 없이 건물을 신축해 발생하는 토지경계분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장수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건축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주택을 신축한 자로서 1가구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9월 말 기준, 주택을 신축한 주민 총 44명에게 지적측량비 2천여 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장수군 지적측량비 보상금 신청서, 건축준공 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지적측량비 세급계산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장수군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토지경계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해 신규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물 릴레이 라이브커머스 진행

진안홍삼축제 현장서 입점농가 9개소와 농특산물 홍보

진안군 지역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물'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진안홍삼축제 기간 중 축제현장에 마련한 오픈스튜디오에서 입점농가 9개소와 릴레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축제장에 오픈스튜디오를 설치·진행함으로써 진안홍삼축제 방문객들과 소통·호응하는 등 현장감을 살려 진안홍삼 등 진안군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매율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제 라이브커머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주간의 라이브커머스 진행 교육의 마지막 실습교육이기도 하다.

현장에서는 유명 리포터와 농가 및 업체가 함께 출연해 상품에 대한 관측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8일, △14시 푸지봉 추출액 및 푸지빙잎차, △16시 도라지배즙, 머위즙의 방송이 송출되며, 9일, △10시와 13시 30분 홍삼액과 홍삼절편, △12시 장류 선물세트, △17시 황금새싹인삼의 라

이브커머스가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10시, 17시 홍삼액과 오미자청, △13시30분 건강차 선물세트를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진안고원물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 중 구매자에게는 구매인증 상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에 따라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대안으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지역 축제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현장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온라인 홍보·판매의 채널로 모두 이용하기로 한 진안홍삼축제의 오픈스튜디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지난 4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도 고공행진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무주군,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고공행진 간담회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지난 4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도 고공행진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함께 20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고민하고 향상 방안과 사책을 공유하는 등 종합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전라북도 감사관실 감사관 및 팀장과 무주군 부군수 및 기획실장, 관련부서장 등 14명이 참석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에 대응한 맞춤형 청렴 사책을 공유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와 무주군이 추진할 수 있는 청렴 사책을 논의하고 각 분야 업무에 대한 무주군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전라북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청렴도 시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 김희욱 부군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 내 청렴의식 함양과 공정한 업무처리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포스터 공모해 '무주를 담당하게 하는 힘, 청렴'을 선정하는 등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교육, 청렴 자체평가 등의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번암면 상추작목반과 간담회 가져



최훈식 군수는 지난 4일 번암면 상추작목반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4일 번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번암면 상추작목반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장수군 번암면 대표 농산물인 상추 작물의 지속적인 소득향상 및 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느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배주환 작목반장은 "상추 출하 시 박스 지원과 이상기온에 대한 자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현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원예사업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상추 등 원예작물이 안정적인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착수

무주군이 지난 4일 2022년 2학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군수)에 따르면 2학기에 대학교 1·2·3학년 재학 중인 학생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하는 반디장학생을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1학기에 신청했던 학생들도 2학기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장학생 선발 대상이 된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공통 기준은 공고일 현재 보호자 중 1인과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이 모두 무주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장학생 지원서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공통) 및 학생 주민등록초본 △대학재학증명서(반디장학생) 등을 갖춰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무주군평생교육원 내 위치)이나 읍·면 총무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인삼·홍삼 산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김병갑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 인·홍삼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삼·홍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진안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홍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매출 및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가공업체와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진안군은 인·홍삼 산업 현황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삼연구소 지원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지원 △홍삼가공시설지원 △홍삼약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인·홍삼 판매장 활성화 지원, 인삼·홍삼과 한방분야 각종 지원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기관, 단체 및 농가가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인삼 농가들은 인삼재배 및 판로확대와 홍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